

내가 써본 올림픽 종합정보망(WINS)

柳 京 熙 (한국데이터통신 연구위원)



필 자

- ▲경북대 물리학과 졸업
- ▲성균관대 대학원(전산) 석사
-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전산실장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데이터통신 교육본부장
- ▲한국데이터통신 연구위원(현)
- ▲동탑산업훈장 받음

올림픽이 끝났다. 그런데 각 언론사에서는 자화자찬이 극도에 달한 듯하다고 느낄 만큼 자자하다. TV 인터뷰를 하는 모든 외국인들 치고 모두가 올림픽 종합정보망의 칭찬을 안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거기에는 WINS 성공 자축연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과연 성공은 성공이로구나 싶었다.

나는 2년전의 아시안 게임때의 시스템 INS도 프랑스에서 찾아보면서 프랑스인들을 놀라게 하던 기억이 생생한지라 이번에도 꾸준히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용하여 보았다. 틈만 나면 연결을 해서 매 순간의 국가별 매달수를 찾아 보았다. 내가 운동선수에 관한 상식이 무식해서 기껏 안다는 사람이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대결이 심각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을 정도. 그밖에 심지어는 우리 선수들의 아는 이름도 몇 안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의 통신전문가들은 통신이 한 순간이라도 꺾어버릴까봐 초조한 2주일을 보냈다. 「후시나 꺾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초조한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이게 꺾어버렸는지 아닌지를 지키는 한사람으로 나에게 단말기(특정통신회선)가 배당되었다. 그래서 이걸 사무실에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면서 내방자에게도 보이곤 했다. 집에서는 공중데이터망(DACOM-NET)을 경유하여 WINS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꺾어버리길 기다렸는데(?) 이것이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 「일이 잘 되려고 그렇겠지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자들이 화를 내겠지?

2년전의 INS 시스템 당시의 실화 한 토막. 내가 아시안

게임의 결과를 어느 외국인에게 시범하여 보이고 있는데 내가 건반을 잘못 치니까 화면에서 「Illegal command」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 말은 「잘못 쳤어요. 다시 치세요.」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 메시지를 읽던 그 외국인이 금방 두 손을 화면 앞으로 모아서 제시하면서 「체포하여 달라」는 시늉을 한다. 그제서야 느꼈다. 아하, 이 말이 너무 강하구나라고. 이것만 해도 2년전의 일이다. 이러한 모든 걸 다 고쳤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User Friendly」한 시스템, 충분한 정보내용 등이 외국인들에게 대단히 호감이 간 모양이다. 그래서 200만번 이상의 역세스가 있었으며, 1천만 화면 이상의 검색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기자에게 물어봤다. 「WINS를 써 봤습니까?」라니까 「예, MPC에서 써봤지요. 그런데 놀란게 하나 있지요. 「그게 뭔데요」라고 물으니 「4개국어로 되어 있더군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글…」 하면서 「일본 같으면 기껏 영어와 일본어였겠지요」라고. 이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모양.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용선 가입자인 경우와 공중망 가입자의 경우가 그 쓸모가 달랐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시간만 충분히 있었다면 모두가 같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러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있는 단말기는 한글 전자메일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로 올림픽 관계자와 교신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이를 통하여 페이지도 가동되고 오디오텍스트도 가동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이걸 써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올림픽에 깊이 관여할 못했기 때문에 다만 한글 전자메일로써 여러 사람과 교신을 해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도대체 한국의 기자들이 한글 전자메일을 통해서 나한테 한번도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말이지, 한글로 전자메일을 한다면 나한테 인사장 한장쯤 보내는 것이 상식일텐데... 며칠을 기다리다가 올림픽 관련자에게 「관심한 한국기자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확실히 한국기자들은 기계에 약한 것이 분명하다. 외국 기자들이 랩톱(Lap Top) 워드프로세스를 들고 와서 그걸 두두둑 쳐내려 가는 걸 멍하니 쳐다 보기만 하고 있으니 이래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충

분히 있었는데 이것이 잘 쓰여지지 않은 것이 몹시 서운하다.

올림픽 기간중에 미국인 2사람이 내방하였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WINS를 자랑하였다. 그러면서 한미간의 이상한 감정에 관하여서도 이야기 하였다. 나는 농담으로 「미국의 성적이 너무 나빠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 사람더러 「너희 선수들에게 격려편지를 보내지 않겠어?」라고 했더니 그것도 보낼 수 있는냐고 묻는다. 「그럼」 하면서 단말기를 열었다. 아차! 내가 몰랐잖아? 격려메시지는 전용선으로는 못보내고 공중망으로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할 수 없이 LAN을 경유해서 공중망으로, 여기서 WINS를 연결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격려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어렵쇼? LAN 경유한 것은 단말기에 「에코백」이 없어서 쳐넣은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화면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쳐넣으라고 양해를 구하였다. 이 미국인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는 선수 몇명에게 모두 편지를 쳐서 넣는다. 그리고 발송하여 버렸다. 간단히... 불과 10분 미만에...

한편, 국내에서 공중망을 쓰는 가입자는 한글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상용의 한글전자 사서함을 써서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 축하,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 운동을 벌렸다. 하루 몇통씩은 꼭 편지를 써보내자는 격려문을 써서 모든 한글전자 사서함 가입자들에게 보냈다. 이들의 협조가 있어서 모두가 2,074 통의 축하편지가 발송되었다.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의 수만해도 150명 가량 된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직접 WINS를 연결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선수들에게도 많은 격려 축하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는 WINS가 외국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만든다는 만점이라고 보며, 이것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에게 컴퓨터 마인드를 심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정보를 생산하고 보내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진흥이라고 생각한다. ♣